

승자독식 거대사회 과연 바람직한가

자이언티즘

게스트 노엘스 지음·박홍경 옮김



“미래는 더 작고, 느리고, 인간적이다. 이 3개의 형용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규모가 더 인간미 있고 전문가와 수학적 시스템으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작다. 더 이상 성장 촉진 약물과 부채에 대한 증폭으로 자극을 가하지 않고 인간 본성의 흐름에 맞춘다는 점에서 느리다. 그러한 경제는 사람에게 더 가깝고 풍요병이 효과적으로 억제되며 더 이상 영구적인 약품과 싸울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인간적이다. 이는 유토피아 경제가 아니라 사회, 생태, 경제 등 인류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는 경제다. 수십 년 동안 경제학자가 대학과 준과학적 이론을 통해 정책에 반영한 단편적인 경제 이념과는 매우 다르다.”(본문 중에서)

현재 게임의 규칙이 ‘대평화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다. 그는 이를 ‘지상 최대 경제 사기극’이라고도 말한다. 이코노폴리스 CEO 겸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게르트 노엘스다.

그의 책 ‘자이언티즘’은 너무 커서 되레 보이지 않는 경제의 실상을 들여다본다. 저자는 성장과 효율을 불모로 기업이나 기

관, 도시가 끊임없이 비대해지고 있다고 본다. 여기에 중앙은행의 금리인하와 양적 완화 정책은 거대화를 부추킨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전 세계 경제가 경쟁 기회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진단이다.

저자는 이 같은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 ‘챔피언스리그 효과’를 예로 든다. 유럽 축구 리그 챔피언스리그는 상위 몇 클럽에만 막대한 상금을 준다. 이른바 승자독식은 이전의 방식과 비교하면 이색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과거에는 작은 나라 작은 리그에서 뛰던 클럽도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해 우승컵을 드는 사례가 가끔 있었다. 명문팀이더라도 작은 리그 클럽의 돌풍에 발목이 잡히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의 승자독식 방식에서는 숨은 영웅이 탄생하지 않는다. 몇 차례 우승을 통해 자금력을 확보한 클럽들은 몸집 불리기를 하고 유망선수를 사제기해 독점적 지위를 누린다.

저자가 보기에 이러한 자이언티즘은 정부나 거대한 기업, 초대형 도시들도 예외가 아니다. ‘비정상적 성장’을 했다는 의미다. 모든 거대화는 건장성과 거리가 먼 왜곡현상이다. 정상적이지 못한 성장의 이면에는 실물경제의 성장을 동반하지 않는 금융잔치가 있다.

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중앙은행은 금리를 낮추고 돈을 더 빌려 쓰도록 유도한다. 물론 저자는 자본주의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경



저자는 대형 항공에서 대형 공항, 대형 항공기, 대형 조직에 이르기까지 자이언티즘은 곳곳에서 발견된다고 설명한다. 사진은 거대한 컨테이너선. <템 제공>

제 시스템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본 규칙마저 어기며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위기에 처하면 정부가 국민세금이나 새롭게 찍어낸 자금으로 지원해준다는 사실을 안다. 대기업과 대형병원, 대규모 학교도 마찬가지다. 당치가 커져야 정부 정책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성장률이라는 눈앞의 성과에 급급한 탓

에 공정한 경제, 건전한 경제 시스템은 무너지고 있다. 더 큰 기업을 만들어 성장을 이루려 한다. 세계 주요국들의 성장률은 이런 식으로 달성했다는 것이다.

저자는 “하지만 우리가 모색할 변화는 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아래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성공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한다.

<템·1만4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음식에도 마스크를 씌워야 하나요=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먹고 마셔야 할지에 대해 명확한 방향을 제시한다. 팬데믹 시대의 도래에 발맞춰 음식 문화가 어떻게 달라질지 고찰하며, 우리의 식탁에 흔히 올라오는 나물, 김치, 두부 등을 영양학과 환경 보호의 관점에서 새롭게 분석하고 명확한 이유를 들어 하나의 완성된 음식으로 추천한다.

<마음의숲·1만5000원>



▲모두가 세상을 똑같이 살지는 않아요=지난해 프랑스 최고문학상인 공쿠르상을 받은 장편소설이다. 프랑스 작가 장 폴 뒤부아의 작품으로, 평단으로부터 대중성과 문학적 완성도를 모두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프랑스에서 캐나다로 이주한 뒤, 한 아파트에서 26년간 관리인으로 근무하다 우연한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담았다.

<창비·1만5800원>

하고 더 특별한 가능성을 찾는 사람들에 주목한다.

<부키·1만8000원>

▲그곳에 늘 그가 있었다=1960년대부터 군사독재에 맞서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해운 김정남 선생의 회고대담집이다. 영화 ‘1987’의 모티브로 알려진 김정남은 한인섭 서울대 교수와의 대담을 통해 국내외에서 민주화에 협력했던 숨은 주역들의 이야기와 박종철 고문치사, 김영삼 대통령 취임사 작성, 2002년 월드컵 유치 등 주요 사건의 내막을 전한다.

<창비·3만5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오늘은 우리 집에 갈래?=주인공 코코는 남들보다 느리고 서투르며, 의사소통 방식이 남다른 아이다. 코코는 저자의 조카를 모델로 한 캐릭터다. 저자는 코코의 남다른 면을 개성으로 받아들이는 동물 친구들이 함께 어울려 지내는 이야기를 통해 코코가 일방적인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 삶을 살아가는 당당한 사회 구성원임을 보여준다.

<한울림스페셜·1만3000원>

▲가을에게, 봄에게=영원히 만날 수 없는 친구인 ‘봄’과 ‘가을’이 편지를 주고 받는다는 상상력이 빛나는 작품이다. 편지 속 다정하면서도 담백한 문장과 자연의 모습을 담은 서정적인 그림이 조화를 이룬다.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친구와

만날 수 없어도, 마음을 나누다 보면 우정은 변치 않고 영원할 수 있다는 걸 전해 주는 이야기다.

<미디어창비·1만3000원>

▲아빠 바다=세상에 없는 아빠를 그리워하는 소년 동해의 이야기를 그렸다. 여름 동안 민박집을 운영하는 동해네에 올리는 서울에서 정민이라는 소녀가 왔다. 한 번도 바다를 본 적이 없다는 정민의 손을 잡고 동해는 바다로 간다. 동해는 바다를 보여주려고 싶은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아빠를 만나고 싶었던 것일까. 시원한 바다가 넓게 펼쳐진 그림 속에 아빠를 그리워하는 동해의 마음을 담았다.

<창어람주니어·1만3000원>

만년필·안경 등 우리 삶과 밀접한 이름 소환

명사의 초대

김경집 지음



“고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인문학의 법이다’ 등을 통해 독자와 만나는 인문학자 김경집이 이번에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명사’ (名詞)를 호명했다. 그의 새 책 ‘명사의 초대-이름을 불러 삶을 묻는다’는 흔히 그냥 스쳐간 명사들에 말을 걸고 들은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산문집이다.

저자는 “사물의 이름은 단순히 명사의 일부가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고 내 삶에 작용하며, 앞으로도 내 삶과 세상을 이어 줄 소중한 이름들”이라고 말하며 47개의 명사를 초대해 이야기를 풀어간다.

명사는 우리가 언어를 처음 배울 때,

일상생활을 할 때도 가장 많이 쓰는 품사다. 우리는 명사를 통해 언어의 세계에 발을 내디디며, 명사를 기반으로 삼아 다른 품사로 언어의 세계를 확장하는 셈이다. 그가 들려주는 명사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이고, 우리 삶에 던지는 소소한 질문이기도 하다.

책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첫 장에서는 고개만 돌리면 쉽사리 마주치는 ‘이곳(此)’의 명사를 초대한다. 만년필, 종이, 컴퓨터, 신용카드, 달력, 도장, 리모컨 등이다. 다음 장에서는 창문, 의자, 접시,

액자, 샴푸, 일회용밴드, 림프 등 집안을 채우고 있는 ‘여기’의 명사들을 둘러본다. 마지막 장에서는 우리와 다소 떨어진 거리에 있는 ‘그곳’의 명사를 밖에서 만난다. 신호등, 광장, 우체통, 가로, 고속도로 휴게소, 화폐 등이다.

저자가 소개한 어떤 것들은 과거부터 만나왔고, 어떤 것들은 어느 틈에 서서히 사라진 탓에 미처 작별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 멀어지기도 했다. 반면 어떤 것들은 지금도 부지런히 쓰고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새로 나타난 명사들인데 마치 오래전부터 알았던 것처럼 일상에 깊숙하게 들어왔다.

저자는 각각의 명사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그 이름은 어떻게 지어졌는지, 시간을 관통하면서 그 모습과 쓰임새가 어떻게 변

해왔는지 등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아온 삶을 묻는다.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신용카드’가 불과 1950년에 우연한 계기로 시작된 사연과 한국에서 한때 ‘신용카드’가 사회적 위치를 과시하는 수단이었던 까닭을 파헤친다.

또한 제2의 몸이라고 불려도 무방한 ‘안경’을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끈 정도도 썼으며,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택시 뒷 손님으로 ‘안경’ 쓴 사람을 피할 정도로 안경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한편 이제는 서서히 퇴장을 준비하는 명사의 이야기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물성을 지닌 사물의 퇴장이 아닌, 거기에 담겼던 한 사람의 시간과 추억도 함께 기억의 건너편으로 물러나는 것이라고, 그렇기에 우리는 그 뒷모습을 바라봐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우체통’이 바로 그 대표적 예이다.

<교유서가·1만5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NAVER 백산광화문작명소

T) 02-747-0242 / 02-738-1938
M) 010-5639-4088 / 010-3785-1935

名 作 名 作 名 作

광화문父子작명가

성스러운 탄생과 이름

세상은 좋은것도 많고 나쁜것도 많다. 이름도 좋은 이름 많고 나쁜 이름도 많다. 사람은 이름이 좋아야 평생 마음 먹은대로 하는일 마다 잘 되고 대복을 누린다. 나쁜 이름은 매사가 잘 될 것 같지만 하는일 마다 실패한다. 일시적으로 성공했다 해도 수포로 돌아간다. 좋은 작명가를 만나는 것은 행운이다. 끝으로 이름 값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30만원이 기본이요. 많은 성의를 표시 하는 가정이 있고 형편에 따라 조금 저렴 하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은 곧 생명입니다. 저의 부자는 정성으로 대명작의 이름을 작명하여 전국 어디에나 보내드립니다. 나쁜이름과 상호는 새이름 (new name)으로 바꾸시면 전화위복이 됩니다.

작명가 白山 선생과 아들 서승재 박사 父子가 정성으로 작명한 大名作의 이름으로 평생 마음 먹은대로 大福을 받으세요

작명가 白山 작명가 서승재 박사 (백산2세)

한국 최고의 작명가로 KBS TV 9시 뉴스 방영 당시 白山 선생

외국인과 교포가 많이 찾는 白山 선생 (MBC TV 방영)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민 비대면 작명을 환영 합니다.